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http://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ty](https://facebook.com/groups/yagfynt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행전 5,12-16

[화답송] ..... 시편 118(117),2-4.22-24.25-27 ㄴ (㉠ 1)



(후렴) 주님은 종으신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 독서] ..... 요한묵시록 1,9-11 ㄴ .12-13.17-19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요한 20,29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20,19-31

[성가안내]

- 입당성가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이 영우, 이 태묘 최 순자 막달레나 김 용기 요셉 김 정숙 이 철우 스테파노 이 정진 안토니오 이 필영 마리안나 박 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가족 이 상홍 스테파노 장수림 에피파니아 이 은경 헬렌 이 은경 헬렌 오 병민, 이 가을 한 동훈 이 영근 마이클 양 미숙 마리아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엘 그레이스 이 한규 (생일 축하) 민 사현 베드로, 민 사롱 가브리엘 김 진우	한 동훈 이 경자 올리안나 민 덕미 안젤라 정 리드비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4월24일	박기웅 사도요한	백승민 안드레아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유정옥 유스티나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장동엽 에드문드
5월1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조소연 마르티나	조소연 마르티나	김종선 비비안나	최예준 사도요한	한창희 바오로

● **청년 미사 5월 1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원 모집**

- 문의 : 정동주 유스토 부장 917-750-6432
- 김승현 마리아부부장,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부부장, 신부님

● **청년 레지오 'Zoom'**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25주년 기념 '사랑의 나눔 바자회'**

- 일 시 : 6월 5일
- 각 단체들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동북부 2022 꾸르실료 1일 피정**

- 일 시 : 4월 30일 (토)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 소 : 뉴저지 가톨릭 회관
- 비 용 : 무료

● **오늘 미사후 사목 협의회 있습니다.**

● **풍물패 '신명' 연습 오후 2시 ~ 4시 있습니다.**

● **미동북부 제 78차 부부 주말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2022년 5월 28일 ~ 30일
- 장 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롱 아일랜드)
- 참가비 : \$100
- 신청문의 :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철순 스테파노부부  
646-322-3484 Chriskim04@gmail.com

●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 강의**

- 일 시 : 5월 1일 주일 미사 후
- 장 소 : 다미아노 홀
- 강 사 : 한국인 강사 (프란치스코회 이민사목 담당 줄리안 신부님께서 주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천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2층 컨퍼런스룸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8:30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4:30pm	아랫성당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2022년 4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요한 20,19-31 )

부활 제2주일, 교회는 토마스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문을 잠가 놓고 있는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드레 뒤, 토마스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구절 뒷부분의 그리스 말 본문을 직역하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이가 되어라’입니다. 토마스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껏 품어 온 불신과 의심을 내려 놓으라는 초대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라는 이중 고백을 포함합니다. 이 탁월한 표현은 초기 교회 공동체 전례 때 사용 되었을 신앙 고백이 반영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믿음과 증언, 믿음과 행복이 긴밀히 연결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목격 증인의 증언을 믿음의 토대로 삼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경과 성전, 수많은 성인과 이름 모를 이웃의 힘 있는 증언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초대를 받습니다.

- 김 상우 바오로 신부 -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일”의 말씀은 앞부분(20,19-23)은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뒷부분(20,24-29)에서는 요한 복음 고유의 사료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토마스 사도와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토마스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부활 인사를 받지 못했다. 토마스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뵈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의 증언에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고 강력히 말한다.

며칠 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시어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하신다  
복음사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사건 안에서 손과 발에 상처,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없는 그리스도를 결코 생각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찢린 심장과 우리를 당신과의 일치로 이끌기 위해 찢려 벌어진 옆구리의 상처없이 영광에 싸여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즉,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말고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토마스가 아직도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참 사람이시고 신성을 가진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복음사가는 강조한다. 그러나 토마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신다.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